

2019년 12-2호

KIET 경제산업동향

2019. 12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현대경제연구원(2019.12)]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미국 혼조세, 일본·유로존 부진 지속, 중국 반등세

- 미국은 11월 경제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美 의회의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진정
- 일본은 10월 내수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로존 역시 경제지표들의 부진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
- 중국은 11월 내수지표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수출 부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 등으로 내년도 성장을 전망 관련 낙관론 대두
- 달러화는 12월 들어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약세를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 합의, 브렉시트 불확실성 완화,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 등으로 강세
- 유가는 OPEC의 감산 결정과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미·중 무역협상 합의 등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가 해소되면서 추가 상승세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4%, 소비·투자 동반 감소

- 10월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공업에서 제조업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2개월 연속 감소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1.7%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0.3% 증가

□ 금 융 : 11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12월 중순(12.13~12.24일) 금리 약보합·원화 강세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약간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합의 도출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현물 및 국채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등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중국 위안화 강세, 외국인들의 국내증시 순매수 등으로 인해 상당 폭 하락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서비스업생산 증가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와 반도체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함에도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2.5% 감소
 - 제조업ICT에서는 증가, 중공업에서는 감소 전환, 경공업은 감소폭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교육, 운수·창고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도 보건·사회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0.7%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 0.2% 증가

□ 고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11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SOC·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율이 1.2%로 하락

□ 수출입 : 11월 수출 -14.4%, 수입 -13.0%, 무역흑자 33억 달러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4% 감소한 441억 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13개의 주력 품목 가운데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전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11월 실물·체감지표 혼조 지속, 정치적 불확실성 다소 진정

○ 11월중 생산 확대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상반된 실적을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혼조세가 지속.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美 의회의 예산안 통과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진정

- 산업생산은 10월말 GM 공장의 파업 종료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이 전월비 큰 폭 증가(12.4%)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데 반해,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0.5%) 등의 증가에도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과 달리 소폭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기준치(50)를 밑돌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도 미래 기대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하는 모습에도 현재 평가지수가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
- 제조업 일자리 수는 전월과 달리 5.4만명 증가하고, 실업률도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추세의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에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 美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 등에 따른 긍정적 기대감이 확산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9	3.1 (2.7)	2.0 (2.3)	2.1 (2.0)					
산업생산	3.9	-0.5	-0.6	0.3	-0.2	0.8	-0.4	-0.9	1.1
(IT 생산)	6.4	(1.9)	(-0.2)	(2.7)	(0.8)	(1.9)	(0.0)	(0.1)	(1.7)
내구재수주	7.9	0.3	-3.5	2.1	2.1	0.2	-1.5	0.5	-
소매판매	4.8	0.3	1.9	1.4	0.7	0.6	-0.4	0.4	0.2
소비자물가	2.4	0.2	0.7	0.4	0.3	0.1	0.0	0.4	0.3
실업률(%)	3.9	3.9	3.6	3.6	3.7	3.7	3.5	3.6	3.5
무역수지(10억US\$)	-627.7	-156.5	-159.1	-157.4	-52.7	-53.5	-51.1	-47.2	-
ISM 제조업지수 ¹⁾	58.8	55.4	52.2	49.4	51.2	49.1	47.8	48.3	48.1
소비자신뢰지수 ²⁾	130.1	125.8	128.3	132.1	135.8	134.2	126.3	126.1	125.5
경기선행지수 ³⁾	110.1	111.5	111.8	112.0	112.2	112.0	111.8	111.6	111.6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0월 내수지표 부진, 日 정부 경기 하강 우려에 추경예산 검토

- 지난 10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과 달리 큰 폭 감소하고, 기업들의 수주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4분기 초반의 실물지표들은 부진한 모습. 日 정부는 성장률의 상향 추세 전망('19년도 0.9% → '20년도 1.4%)을 견지하면서도 실물경기의 하강 리스크에 대비하여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0.3	0.6	0.5	0.4					
광공업생산	1.0	-2.5	0.7	-0.5	-3.3	1.3	-1.2	1.7	-4.5
민간기계수주	5.1	-3.2	7.5	-3.5	13.9	-6.6	-2.4	-2.9	-6.0
소매판매	1.7	-1.3	0.4	3.2	0.0	-2.3	4.6	7.2	-14.2
소비자물가	1.0	0.2	0.1	0.1	0.0	0.1	0.0	0.0	0.0
실업률(%)	2.4	2.4	2.4	2.3	2.3	2.2	2.2	2.4	2.4
무역수지(10억엔)	-1,225	-563	-329	-523	588	-252	-146	-128	16
경기선행지수 ¹⁾	99.9	96.3	94.7	92.5	93.5	93.6	92.0	91.9	91.6

자료 :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1월 내수 반등 · 외수 부진, 내년 성장률 전망 낙관론 대두

- 11월중 생산과 소비가 등 내수 지표들이 전월과 달리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외수 여건의 약세를 반영.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인민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 등에 힘입어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GDP)	6.6	6.4	6.2	6.0					
산업생산	5.7	6.5	5.6	5.0	4.8	4.4	5.8	4.7	6.2
고정투자(누계기준)	5.9	6.3	5.8	5.4	5.7	5.5	5.4	5.2	5.2
소매판매	8.3	8.3	8.5	7.6	7.6	7.5	7.8	7.2	8.0
소비자물가	2.2	1.8	2.6	2.9	2.8	2.8	3.0	3.8	4.5
수출(달러화기준)	9.2	1.0	-1.0	-0.3	3.3	-1.0	-3.2	-0.9	-1.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0월 경제지표 부진, 역내 정치적 불안 요인 여전히 상존

- 지난 10월 역내 실물지표들의 동반 감소세와 경기체감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실물경기 부진을 시사. 英 보수당 승리에 따른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우려 완화에도 프랑스 파업 지속 등 정치적 불안 요인은 여전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8	2019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	1.8	0.4	0.2	0.2					
산업생산	0.9	0.6	-0.7	-0.8	-1.5	-0.3	0.5	-0.1	-0.5
소매판매	1.6	0.8	0.6	0.5	1.0	-0.5	0.6	-0.2	-0.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8	1.4	1.4	1.0	1.3	1.0	1.0	0.8	0.7
무역수지(10억유로)	192.4	52.8	51.5	55.4	17.7	17.0	19.7	18.7	24.5
경기체감지수 ¹⁾	111.2	106.0	104.1	102.5	103.3	102.7	103.1	101.7	100.8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후 강세 전환·유가 상승 지속

- 12월 들어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 방향과 영국의 총선 결과,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인 이후, 미·중 무역협상 합의와 브렉시트 우려 완화, 연준의 금리 동결 시사 등으로 강세
- 유가는 12월 초 OPEC의 감산 결정과 달러화 약세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우려 완화 등으로 강세가 지속. WTI유와 두바이유는 9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1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25일
엔/달러	110.86	111.42	108.29	107.85	108.78	106.28	108.08	108.03	109.49	109.38
달러/유로	1.1218	1.1215	1.1169	1.1373	1.1076	1.0982	1.0899	1.1152	1.1018	1.1093
미 국제 (10년만기)	2.41	2.50	2.12	2.01	2.01	1.50	1.66	1.69	1.78	1.90
WTI유	60.1	63.9	53.5	58.5	58.6	55.1	54.1	54.2	55.2	61.1
두바이유	67.6	72.1	63.2	64.8	63.6	59.6	59.9	59.3	62.7	66.0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감소 지속, 소비·투자 감소

○ 지난 10월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전월비 증가세를 보인 반면, 광공업에서 제조업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비 2개월 연속 감소세

-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전월비 -7.0%)과 자동차(-4.4%) 등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감소세(-1.7%)로 전환되고,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3.1%)과 정보통신(1.9%)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월비 0.3%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3.2	2.7*	1.7* (-0.4*)	2.0* (1.0*)	2.0*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8	2.8*	1.9* (0.1*)	2.0* (0.7*)	1.8*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16.5	-2.4*	-17.4* (-9.1*)	-7.0* (3.2*)	-2.6* (0.6*)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7.3	-4.3*	-7.2* (-0.8*)	-3.5* (1.4*)	-3.7* (-6.0*)	-	-	-	-
전산업생산지수	2.5	1.4*	-0.6 (-0.8)	0.4 (0.5)	0.5* (1.1*)	0.7 (1.6)	0.0* (0.2*)	0.5* (-0.4*)	-0.5* (-0.4*)
광공업생산지수	2.4	1.3*	-2.1 (-2.9)	-0.7 (1.4)	-0.8* (1.9*)	0.6 (2.8)	-3.3 (-1.8)	0.4* (2.0*)	-2.5* (-1.7*)
제조업생산지수	2.2	1.2*	-2.1 (-3.0)	-0.8 (1.6)	-0.7* (1.8*)	1.0 (2.8)	-3.3 (-2.0)	0.2* (2.1*)	-2.5* (-1.5*)
서비스업생산지수	1.9	2.1*	1.1 (0.3)	1.4 (0.0)	1.6* (0.8*)	1.5 (1.2)	2.4 (1.1)	1.0* (-1.3*)	0.7* (0.3*)
소매판매액지수	1.9	4.2*	1.7 (1.3)	2.0 (1.0)	2.3* (0.2*)	-0.3 (-0.8)	4.1 (3.9)	3.1* (-2.3*)	2.1* (-0.5*)
설비투자지수	14.1	-3.7*	-19.6 (-5.4)	-8.7 (1.2)	-4.0* (0.8*)	-4.8 (2.2)	-4.0 (0.5)	-1.6* (2.1*)	-4.8* (-0.8*)
건설기성액	10.1	-5.2*	-9.5 (1.8)	-6.4 (-1.8)	-7.8* (-4.3*)	-8.1 (-4.6)	-7.4 (0.9)	-7.9* (-3.2*)	-4.3* (1.7*)
동행종합지수(2015=100)	107.2	109.4*	109.8	110.4	111.1*	110.7	111.1*	111.3*	111.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1	100.5*	99.4	99.4	99.4*	99.3	99.5*	99.5*	99.4*
선행종합지수(2015=100)	109.3	112.8*	113.8	114.6	115.0*	114.7	114.9*	115.4*	116.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100.2*	99.0	98.9	98.4*	98.4	98.4*	98.5*	98.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전월비 1.4%)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준내구재(-2.8%)와 내구재(-2.3%) 등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비 0.5% 감소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3.6%) 투자가 증가한 반면, 기계류(-2.3%) 투자가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2.6%) 공사 실적이 증가한 데 힘입어 전월비 1.7%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수입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감소한 반면에, 비농림업 취업자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1%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재고순환지표와 코스피 등이 감소한 데 반해,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5% 상승

□ 물가 : 11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0.1% 하락

- 11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2.6%)를 비롯해서 오락·문화(-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0.8%), 통신(-0.8%)과 교통(-0.5%) 등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하락(전년동월비 0.2%)
- 11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0.9%)에서 소폭 상승하고, 서비스에서는 보험세(0.0%)를 보인 반면, 공산품(-0.2%)과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0.2%)에서 동반 하락함에 따라 전월비 0.1% 하락(전년동월비 -0.1%)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9	1.5	0.5 (-0.4)	0.7 (0.4)	0.0 (-0.1)	0.7 (-0.2)	0.6 (-0.3)	0.0 (0.2)	-0.4 (0.4)	0.0 (0.2)	0.2 (-0.6)
근원물가	1.5	1.2	1.1 (0.4)	0.9 (0.3)	0.8 (-0.1)	0.9 (-0.1)	1.0 (-0.2)	0.9 (0.1)	0.6 (0.0)	0.8 (0.2)	0.6 (-0.3)
생산자물가	3.5	1.9	0.3 (-0.5)	0.4 (0.5)	-0.5 (0.4)	0.1 (-0.3)	-0.3 (0.0)	-0.6 (0.2)	-0.8 (0.1)	-0.6 (-0.2)	-0.1 (-0.1)
근원물가	3.1	1.6	0.3 (-0.2)	0.3 (0.4)	-0.2 (0.0)	0.1 (-0.2)	-0.1 (0.0)	-0.2 (0.1)	-0.3 (-0.1)	-0.3 (0.0)	0.0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1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모두 약간 둔화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19.10월 +7.5조원 → 19.11월 +5.9조원, 대기업 +0.8조원, 중소기업 +5.1조원)
 -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 노력 등의 영향으로 일정 규모의 증가세가 지속
 - 대기업 대출 역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
- CP는 전월과 달리 순발행 기조로 전환
(19.10월 -0.4조원 → 19.11.1~20일 +0.7조원)
- 회사채는 연말에 앞서 대규모 선발행된 영향으로 인해 소폭 순상환
(19.10월 +3.6조원 → 19.11월 -0.8조원)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19.10월 +0.5조원 → 19.11월 +1.0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1월말 잔액
	연중	11월	연중	11월	연중	9월	10월	11월	
■ 은행 원화대출	38.1	4.3	42.7	4.8	51.1	4.9	7.5	5.9	875.2
(대 기 업)	-3.5	-0.6	5.0	0.4	-0.2	0.1	1.1	0.8	154.5
(중소기업)	41.6	4.9	37.6	4.4	51.2	4.8	6.3	5.1	720.6
<개인사업자>	27.8	3.2	25.0	2.4	23.9	2.4	2.8	2.6	337.7
■ 회사채 순발행	-3.5	-1.4	5.2	-0.1	16.4	0.6	3.6	-0.8	..
■ CP 순발행	2.3	-0.3	0.8	-0.5	1.8	-1.2	-0.4	0.7	20.1
■ 주식발행	13.9	2.4	10.1	0.5	5.6	0.1	0.5	1.0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11월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확대된 반면에, 기타대출이 약간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19.10월 +7.2조원 → 19.11월 +7.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모기지론 양도 포함 : 19.10월 +4.6조원 → 19.11월 +4.9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의 소멸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19.10월 +2.5조원 → 19.11월 +2.1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7		2018		2019				19.11월말 잔액
	연중	11월	연중	11월	연중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58.9	6.7	60.8	6.7	53.5	4.8	7.2	7.0	881.1
■ 주택담보대출	37.2	3.0	37.8	4.8	40.1	3.8	4.6	4.9	648.0
■ 기타대출	21.6	3.7	22.6	1.9	13.5	1.0	2.5	2.1	231.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19.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2월 중순(12.13~12.24일) 금리 약보합·원화 강세

- 국고채(3년) 금리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현물 및 국채 선물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소폭 하락
(12.13일 1.40% → 12.24일 1.37%, 0.03%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 도출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완화 등의 영향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중국 위안화 강세 지속, 외국인들의 국내증시 순매수 등으로 인해 상당 폭 하락
(12.13일, 1,171.7원 → 12.24일 1,163.9원, 7.8원 하락)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7	2018				2019			
		2/4	3/4	4/4	1/4	2/4	3/4	11월	12.24일
국고채(3년)	2.08	2.12	2.01	1.82	1.69	1.47	1.30	1.39	1.37
회사채(3년, AA-)	2.63	2.77	2.45	2.29	2.16	1.97	1.80	1.92	1.95
CD(91일)	1.64	1.65	1.65	1.93	1.90	1.78	1.55	1.53	1.53
CP(91일)	1.79	1.82	1.82	1.97	1.98	1.92	1.72	1.65	1.67
원/달러	1,088.2	1,114.5	1,109.3	1,115.7	1,135.1	1,154.7	1,196.2	1,181.2	1,191.3
원/100엔	966.5	1,014.8	981.2	1,013.2	1,028.2	1,073.4	1,113.4	1,076.9	1,063.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중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2.5%, 전월비 -1.5%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20.8%)와 반도체(11.7%), 통신·방송 장비(10.8%) 등에서 상당 폭 증가함에도 전자부품(-14.4%), 자동차(-6.6%), 의료정밀광학(-20.8%) 등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2.5%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0%)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중공업 (-2.0%)에서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경공업(-4.3%)에서는 감소폭이 확대

- 전월비 기준에서도 반도체(4.9%)와 비금속광물(4.1%), 기타운송장비 (1.2%) 등에서 증가한 반면, 자동차(-4.4%)와 전자부품(-7.0%), 석유정 제(-9.4%)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전체 기준 1.5%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8)는 반도체와 식료품, 담배 등에서 상승한 반 면, 기타운송장비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하락 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2.0%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는 0.4%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5.8%로 전월비 2.4%포인트 상승,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폭(-0.5% → -3.1%, 계절조정치, 전년동월 비)이 크게 확대된 반면, 재고 증가폭(8.2% → 6.0%)은 축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2%로 전월보다 2.3%p 하락

□ 서비스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0.7%,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1.5%)와 교육(-1.2%), 운수·창고(-1.0%),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도 보건·사회복지(6.3%), 정보통신(6.6%), 사업시 설관리·사업지원·임대(2.9%)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0.7%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1%), 금융·보험(-0.8%), 부동산(-1.8%), 보건· 사회복지(-0.1%) 등을 제외하고 숙박·음식점(3.1%), 사업시설관리·사업지 원·임대(1.3%)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서비스업 전체 기준 0.3%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5.3% 증가, 전월비 기준 0.2%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7년)	2017	2018	2019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4.7	106.1	100.2	106.2	104.4	101.7	102.5	109.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4	1.3	-2.1	-0.7	-0.8	-3.3	0.4	-2.5	-1.7
제 조 업 (원지수)	9,340.4	104.6	105.9	98.9	106.6	104.5	101.3	103.0	110.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2.2	1.2	-2.1	-0.8	-0.7	-3.3	0.2	-2.5	-1.5
섬 유	136.7	-3.1	-6.7	-9.0	-7.5	-3.7	-6.8	-1.5	-7.4	-2.1
화 학	831.5	3.5	2.3	-3.1	-6.1	-2.0	-3.0	-1.5	-2.0	-1.5
철 강	604.5	1.6	-3.0	-2.4	-2.1	-2.7	-6.8	-3.0	-4.6	-3.2
반도체	1,218.3	10.9	20.2	5.8	7.9	8.3	12.5	9.7	11.7	4.9
컴퓨터, 주변장치	44.5	-10.2	-7.7	2.5	-6.8	-5.7	-23.6	8.7	-4.1	-7.8
통신, 방송장비	144.7	-9.7	-7.1	-16.4	-8.4	3.1	22.3	7.9	10.8	-2.1
의료, 정밀, 광학	186.1	19.1	15.1	-8.3	-11.5	-20.5	-25.9	-22.6	-20.8	0.4
기계, 장비	835.8	13.5	-2.9	-11.4	-6.8	-1.9	-4.0	3.2	-0.5	-2.8
자동차	1,066.4	-2.7	-1.4	2.5	1.7	-0.5	-12.5	-2.9	-6.6	-4.4
조 선	221.1	-29.2	-13.5	9.6	22.2	24.2	17.6	28.2	19.5	2.2
- 중 공 업	-	2.6	2.2	-2.0	-0.8	-0.7	-2.9	0.4	-2.0	-2.0
- 경 공 업	-	0.1	-3.1	-2.3	-0.9	-1.1	-5.2	-1.1	-4.3	-4.3
- 제조업ICT	-	7.1	11.3	-2.2	0.9	1.1	2.8	3.7	3.0	3.8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4.5	106.7	104.5	108.4	107.6	108.1	106.9	108.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9	2.1	1.1	1.4	1.6	2.4	1.0	0.7	0.3
도소매	211.3	0.7	1.5	-0.6	-0.1	0.4	1.6	-0.1	-1.5	-1.1
운수, 창고	90.3	1.6	2.1	1.2	-1.3	0.3	1.3	-0.7	-1.0	0.1
숙박 및 음식점	61.6	-1.9	-1.9	-1.3	-1.3	-2.5	-0.7	-4.5	-0.6	3.1
정보통신	79.9	1.6	1.4	3.0	3.9	3.3	2.6	3.0	6.6	1.9
금융 및 보험	140.9	5.1	5.8	1.0	1.1	4.4	5.9	2.5	-0.3	-0.8
부동산	31.8	1.2	0.2	-2.9	-1.6	0.3	1.1	0.8	-0.8	-1.8
전문, 과학 및 기술	71.0	-1.6	0.8	0.6	1.9	2.4	2.1	2.2	1.5	0.9
사업시설관리 등	47.7	4.2	0.6	-0.2	3.0	3.2	1.9	3.6	2.9	1.3
교 육	106.0	0.0	0.1	-0.8	-0.9	-0.7	-0.8	0.7	-1.2	1.0
보건 및 사회복지	94.3	6.6	5.6	8.4	9.8	5.6	5.0	5.0	6.3	-0.1
예술, 스포츠, 여가	21.7	0.2	-0.6	2.3	0.3	-0.9	2.8	-4.4	-0.4	1.8
협회, 수리, 개인	32.1	0.0	0.7	-2.2	-0.7	-2.6	0.4	-3.3	-1.9	0.5
수도, 하수, 폐기물	11.4	0.4	3.0	-1.8	-3.2	0.6	2.8	1.8	-0.4	3.9
- ICT서비스업	-	-4.3	9.7	-1.1	-4.3	9.7	4.0	3.7	5.3	0.2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 용

□ 취업자 수 : 1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11월 전산업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현저하게 축소된 영향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둔화(1.5% → 1.2%)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폭 축소가 지속(전년동월비 -1.8% → -0.6%)
 -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보다 현저히 축소(농림·어업 3.9% → 1.6%, SOC·기타서비스업 2.1% → 1.6%)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2.5% → -3.3%)가 이어지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 전환(0.8% →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금융및보험업(-6.3% → -3.9%)과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3% → -3.1%) 등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0% → 6.3%)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9% → 6.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6% → 2.7%) 등 다수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세도 둔화(4.7% → 4.0%, 2019.6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6%로 3개월 연속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 산 업	26,725	26,822	26,461	27,256	27,382	27,383	27,358	27,404	27,509	27,515
전년동기비	1.2	0.4	0.7	0.9	1.4	1.1	1.7	1.3	1.5	1.2
농림·어업	0.5	4.8	9.6	1.2	3.9	3.7	3.7	4.2	3.9	1.6
제 조 업	-0.4	-1.2	-3.1	-1.4	-1.7	-2.1	-0.5	-2.5	-1.8	-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0.5	1.1	1.4	1.8	1.6	2.0	1.9	2.1	1.6
건 설 업	6.4	2.3	-0.4	0.0	0.0	0.6	1.3	-1.9	-2.5	-3.3
도소매·음식숙박업	0.6	-1.9	-0.9	0.3	0.5	0.2	0.9	0.3	0.8	-0.1
전기·운수·통신·금융	-1.1	3.3	1.2	0.3	-0.8	-0.4	-1.4	-0.7	-0.7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2.1	0.7	2.6	2.7	3.9	3.3	4.0	4.5	4.7	4.0
실업률 (계절조정, %)	3.7	3.8	3.9	4.0	3.5	4.0	3.1	3.4	3.5	3.6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1월 수출 14.4% 감소, 수입 13.0% 감소, 무역수지 흑자 33억 달러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4.4% 감소한 441억 달러, 수입은 13.0% 감소한 40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과 반도체·석유화학·석유제품 단가의 회복 지연,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 취소(7.2억 달러), 조업일수 감소(0.5일) 등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

- 수입은 원유·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액이 대폭 감소(-24.2%)한 데다, 설비투자 감소 여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도 감소하고, 그 동안 증가세를 보인 소비재 수입마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의 감소율이 지속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5.1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7.6% 하락해 있고, 도입물량도 4.7% 감소하면서 금액 기준으로 21.4% 감소한 59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수출	5,737 (15.8)	6,049 (5.4)	1,327 (-8.5)	1,385 (-8.6)	1,348 (-12.3)	440 (-14.0)	447 (-11.8)	467 (-14.9)	441 (-14.4)	4,967 (-10.8)
수입	4,785 (17.8)	5,352 (11.9)	1,237 (-6.6)	1,288 (-3.3)	1,249 (-4.1)	425 (-4.3)	387 (-5.6)	414 (-14.6)	407 (-13.0)	4,595 (-6.4)
무역수지	952	697	89	98	99	16	59	53	33	37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컴퓨터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품목 수출 감소

○ 반도체 : 데이터센터 서버 투자 증가, 스마트폰 메모리 탑재 증가에 따른 반도체 물량 증가, 낸드 가격의 점진적인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D램

가격의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자동차** :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점유율 상승,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SUV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에 따른 대EU 수출 부진과 러시아 정부의 현지생산 유도 정책에 따른 대CIS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전체 수출이 소폭 감소
- **자동차부품** : 아세안·중동·인도 등 신흥시장에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EU·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둔화, 국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철수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 회복으로 최근 선박 수출이 호조세이나, 11월 인도 예정인 대형 해양플랜트의 인도 취소(7.2억 달러), 전년대비 군함·플랜트 수출 부진 여파로 수출이 크게 감소
- **디스플레이** :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폰 수요 증가로 OLED 수출은 호조세이나, LCD 단가 하락 및 출하량 감소 등으로 LCD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
- **무선통신기기** : 애플의 신제품 생산 확대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휴대폰 부품 수출 호조에도, 글로벌 시장의 성장 둔화 및 교체 주기 연장 등에 따른 휴대폰 완제품의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 수출 감소
- **철 강** : 아세안 수요로 수출물량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철강 수요 정체와 중국·미국 등 주요국 생산 확대에 따른 단가의 두 자릿수 하락, EU·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자동차·건설 등) 침체에 따른 판재류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
- **섬 유** : 중동·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일부 국가들의 정정 불안 등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
- **석유제품** :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비 하락한 수준이며,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내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경쟁 심화, 정기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

- **석유화학** : 국내 신증설 설비 정상 가동과 정기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중국 등 역내 공급 증가, 자동차 등 전방산업 둔화 지속 등으로 수출이 감소
- **일반기계** : 중국 건설기계 시장 둔화 및 로컬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심화, 미국내 신규 투자 감소, 인도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현지투자 마무리 단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
- **가 전** :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주요 시장에서의 쇼핑 행사 확대 및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평가 향상에도 불구하고, TV 등 주요 품목에서 중국·일본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전체 수출은 감소
- **컴퓨터** : 서버 및 PC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낸드(NAND) 공급 초과율 축소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컴퓨터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SSD 수출의 호조, 미국 추수감사절 등 성수기에 따른 노트북·태블릿 PC 등 휴대용 컴퓨터 증가 등의 영향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자동차	3.8	-1.9	4.7	8.9	10.3	4.5	3.9	-2.3	-1.4	5.9
자동차부품	-9.5	-0.1	3.0	-7.2	-0.7	-5.3	1.9	-7.2	-9.4	-3.1
선박류	23.1	-49.6	-24.6	49.2	39.1	168.0	30.9	25.7	-62.1	4.2
일반기계	11.4	10.2	0.5	0.5	-4.5	-6.6	-1.7	-12.3	-1.8	-2.3
철 강	20.0	-0.7	-1.8	-8.1	-17.6	-19.9	-9.3	-12.3	-8.8	-9.7
석유화학	23.5	11.9	-10.3	-15.9	-16.9	-19.7	-18.5	-22.6	-19.0	-15.6
석유제품	32.0	32.3	-4.2	-13.0	-14.4	-16.2	-17.1	-26.7	-12.4	-12.8
섬 유	-0.5	2.5	-7.0	-8.5	-8.6	-13.2	-5.9	-6.9	-12.3	-8.3
가 전	-22.1	-18.3	-6.1	-2.3	-1.4	-7.1	0.3	-6.5	-6.9	-4.0
무선통신기기	-25.5	-22.7	-27.2	-21.0	-17.0	-18.9	0.6	-6.7	-2.9	-18.7
컴퓨터	9.5	17.2	-33.7	-36.5	-26.2	-32.2	-22.2	7.7	23.5	-24.6
반도체	57.4	29.4	-21.4	-23.6	-30.3	-30.7	-31.6	-32.1	-30.8	-26.5
디스플레이	9.0	-9.9	-11.6	-13.8	-19.9	-23.7	-17.2	-22.5	-23.4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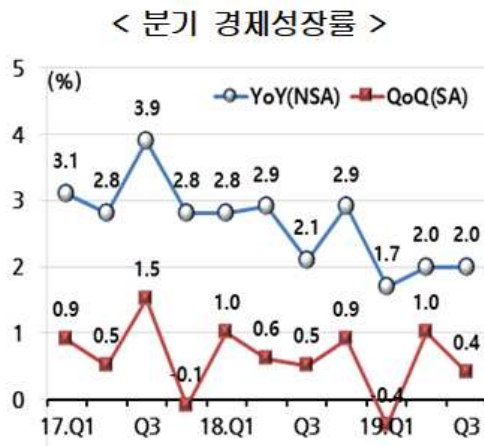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 록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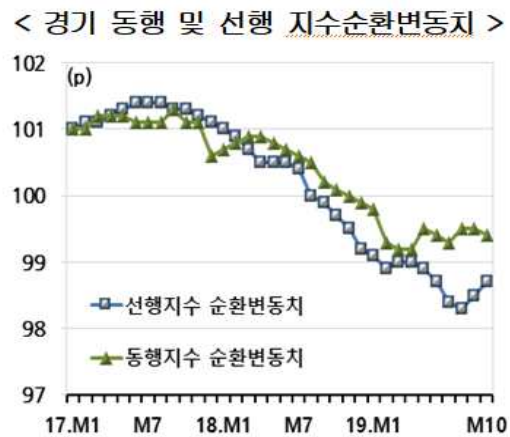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2019.12.6일)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4분기)

- (미약한 경기 반등세) 지난 3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통계청.

□ 주요 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회복의 불확실성)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은 긍정적이나, 10월 들어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소비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 (설비투자 침체 지속) 3분기 이후 소폭 반등하던 설비투자가 10월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행지표들의 방향성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건설경기 침체 속 민간수주 회복) 건설기성은 감소세를 지속중이나, 건설수주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
- (수출 감소 지속)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중
- (고용시장 개선) 공공일자리 및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로 인해 고용 관련 지표들의 호조세가 지속중이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불안 요인
- (0%대 물가 상승률 기록) 원자재 수입물가의 하락세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이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플러스 전환

- (민간 체감 경기 개선)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나, 중장기 추세로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

□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10월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마저 둔화되면서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가 지속
- (제조업) 제조업 생산이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10월 평균가동률도 하락
- (서비스업) 서비스업 내 민간 부문의 활력은 미약해 보이나, 공공서비스업의 호조로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가 지속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 (현 경기 판단)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중기 추세로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중이나, 아직은 회복과 반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
- (경기 방향성 결정 핵심 리스크 요인) 향후 한국경제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핵심 리스크 요인은 ① 친디아 리스크와 수출 경기 향방 ②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민간 부문의 반응 ③ 경제성장 선순환 작동을 위한 투자 회복 여부
 - 2020년 세계경제는 2019년보다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의 핵심인 중국과 인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 2020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경기 진작에 실효성이 있을지의 여부는 불확실
 -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년여의 투자 침체 탈출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음.
- (향후 경기 전망) 상당 기간의 침체로 인해서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을 시 더블딥 가능성도 여전

□ 시 사 점

-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출은 2019년 남은 기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0년 상반기중 집행률을 높여야 함
- 둘째, 향후 통화정책은 既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과 합리적 경기 판단과 예측 속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향후 친디아 리스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 및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
- 넷째, 경기 회복의 전제 조건인 투자 확충을 위해 혁신 성장 전략을 강화
- 다섯째, 고용시장 정책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될 때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산업(경공업, 철강, 자동차, 건설, 보험·교육서비스 등)의 구조적 불황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30)	(12.31)	(1.1)	(1.2)	(1.3)
🇰🇷 11월 산업활동동향	🇺🇸 12월 소비자신뢰지수 🇰🇷 12월 가업경기설사지수 🇰🇷 12월 소비자물가	🇰🇷 12월 수출입통계		🇺🇸 12월 ISM 제조업지수
(1.6)	(1.7)	(1.8)	(1.9)	(1.10)
	🇪🇺 12월 소비자물가(예) 🇪🇺 11월 소매 판매 🇺🇸 12월 ISM 비제조업지수 🇺🇸 11월 무역수지	🇪🇺 12월 경제채감지수	🇪🇺 11월 실업률	🇰🇷 11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 12월 소비자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1.13)	(1.14)	(1.15)	(1.16)	(1.17)
	🇨🇳 12월 수출입통계 🇺🇸 12월 소비자물가	🇪🇺 11월 수출입통계 🇪🇺 11월 산업생산 🇰🇷 12월 고용동향	🇰🇷 11월 기계수주 🇺🇸 12월 소매 판매	🇰🇷 11월 소매판매(수) 🇪🇺 12월 소비자물가(수) 🇺🇸 12월 산업생산 🇰🇷 금융통화위원회
(1.20)	(1.21)	(1.22)	(1.23)	(1.24)
🇰🇷 11월 산업생산(수) 🇰🇷 BOJ 통화정책회의	🇨🇳 12월 산업생산 🇨🇳 12월 소매 판매 🇨🇳 12월 고정투자 🇨🇳 19.4분기 실질GDP 🇰🇷 12월 생산자물가	🇰🇷 19.4분기 실질GDP (속보치)	🇰🇷 12월 무역수지(잠) 🇰🇷 11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 ECB 통화정책회의 🇺🇸 12월 경기선행지수	🇰🇷 12월 소비자물가



© Happy New Year 2019 WhatsApp Images (<https://happynewyear2020imagess.com/>)